

월/요/광/장

최병진



현 정부 출범 후 한국 방송계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 인문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자 YTN노조는 강력히 반발하여 제작거부는 물론, 공정방송 사수 및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올 들어 6월 서울중앙지검은 PD수첩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김보슬·이준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조치 배경에는 정부·여당이 방송을 길들이고 자기 입맛대로 개편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바꾼 것은 개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9월부터는 방송장악이 본격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내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관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다.

방송장악 시나리오

장악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초 구본홍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그 후 전면에 등장한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이 YTN 내부에 폭탄을 던졌다. 보도국장 추천제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보도국장의 전격 교체와 '돌발영상' 임장학 PD에 대한 전격적인 대기발령 조치가 그것이다.

KBS 이사진이 전원 새 얼굴로 교체된 다음날인 8월2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개편의 방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출범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세제지원이나 채널지정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매일경제 등이 종합편성채널 진입을 준비 중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 KBS와 EBS를 공영방송 그룹으로 만들어 일반 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영방송은 각각의 색깔대로 방송을 하고 KBS를 틀면 색깔 없는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여권이 9월 정국

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의 속내가 드러난다. 현재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공영방송법 제정안은 우선 KBS·ITV·2TV, EBS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은 광고수입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게 하되 재원의 80%는 수신료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법이 제정되면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MBC는 사실상 민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이 임기영 MBC 사장의 거취에 대해 "최근 임기영 사장의 진퇴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이를 포함해서 MBC가 국민의 전파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소신 있게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하나의 관영 방송과 다수 민영 방송의 여론 독과점체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결국 대안은 방송장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세력들의 연대만이 유일하다.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이 55년에 걸친 일본 자민당의 일당 독주체제를 본 따려는 시도라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당의 명운을 걸고 저지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 일선에서 직접적 피해가 필연적인 방송노조의 보도투쟁 역시 한 단계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디어 법 무효화 투쟁과정에서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접고 보도투쟁을 선언했지만 국민들에게 방송장악 우려를 각인시켰는지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언론 관계 시민단체들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방송장악 저지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도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이후 국정기조로 내세워온 친 서민, 통합과 중도실용이라는 깃발에 방송자유가 거러지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때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금호타이어 교섭 타결' 경쟁력 회복 계기로

3개월 넘게 끌어오던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다. 공장폐쇄와 전면 파업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됐던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타결된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록 장기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나 공권력 투입 등 극단적인 충돌 없이 노사 간 자율 교섭을 통해 타결된 것은 의미가 크다. 회사로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했고 노조입장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리해고를 백지화시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냈다.

노사협상 타결에 따라 그동안 물량 감소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도 속통이 트였다. 또 광주·전남의 대표적 사업체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가 대화로 단체교섭을 타결함에 따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상타결을 계기로 위기 극복의 공감대가 노사 모두에 확산되어야 한다. 경쟁력 회복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노사가 오는 11월 말까지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금호타이어는 올 상반기에 이미 2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처방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노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금호타이어가 경영위기를 맞게 된 데는 경영진 책임이 크다. 무리한 인수 합병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빛 값을 능력 최악... 가계파산 현실화되나

가계 빚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이 줄거나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추락한 것이다. 가계 빚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가계파산은 물론 금융불안, 소비침체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 말 가계 신용의 비율은 1.39배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2배에 비해 0.07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이 소득 원주율은 몇 초 남지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파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양도성에급증서

(CD) 급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추세에 있다. 한은이 연말이나 내년 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크다.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신용불량이나 파산으로 몰릴 것이 뻔하다.

가계파산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고 투자부진 및 소비침체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겪은 IMF 사태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신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 추가경정예산 확대 집행 등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을 것이다.

법조칼럼

김봉준



작년과 올해의 우리 지역 범죄 동향에 관한 통계를 보면 성인들의 살인, 강도, 방화가 작년보다 월등히 증가했고, 소년들의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및 성범죄도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15~16세의 꽃다운 소녀 3명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K양을 손바(?)주괴자, 자신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로 K양을 유인하여, 집단 구타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전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몇 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는 약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형사사법 테두리 안에서 이 소녀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범죄자로 성장하여 결국에는 구속까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필자는 현재의 소년사법체계가 만으로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한계를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현재 검찰은 비행 정도가 경미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선도위원을 위촉하여

소년 범죄에 대한 단상

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위협하여, 인터넷에 원조교제를 희망하는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실제 그 광고를 보고 2명의 남성이 찾아오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K양의 신고로 이 소녀들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사법구조에 따라 비행소년은 통상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법원 또는 형사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질이 극히 불량한 비행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비행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처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는 여전히 증가추세인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 및 교육의 부재, 다양한 환경적 요인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의 해체되었고, 학교 교육에서 이탈되었으며, 가출한 후 모텔을 전

선도하고 있고, 법원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비행소년을 보호관찰하는 등 소년의 교화, 개선,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한 형사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물적 지원 여건의 열악, 지도·교화 담당자들의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성 부족, 소년의 감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교화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정, 개개인 모두가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해진다면 소년사법에 대한 제도가 진정한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해됩니다.

비행소년별로 멘토가 지정되어 멘토가 비행소년의 후견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는 운동이 범사회적으로 일어난다면, 소년범죄가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 사회단체, 기업 등 사회의 구성주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소년들이 밝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갖고 소년을 이끌어 주는 멘토가 되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면 하는 마음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김용갑



옛날 영산포와 나주를 잇는 다리가 하나 있었다. 그 다리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있을까? 과거 영산교가 그것이다. 바로 나무 다리(木橋)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그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보니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 과거 부산 영도다리처럼 배가 지날 때는 다리를 들어올리고 평상시에는 사람과 차마가 통행했다.

영산교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됐다. 하지만 영산교는 평탄치 못했다. 미군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다리들을 폭파했는데 영산교도 중간에 포탄을

다. 김원일 선생 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장군봉에는 매일 아침 운동하는 동호인들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또한, 내 영산에는 많은 주민이 어디론가 떠나고 원주에는 몇 초 남지않은 것 같다.

지금은 조선시대 소금강고였던 영장굴도 흔적도 없다. 돼지고기 사먹던 꿈발래 막걸리집도 세월을 따라 사라졌고, 전기회사, 삼학사주 주정공장이 사라진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것은 큰 나무 한 그루가 유일한 흔적의 전부이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영산강의 비상(飛上)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새로 만든 다리로 재가설됐지만, 일본의 패망 직전 다리 난간까지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뜯어가 버려 나무로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를 건널 때 강으로 빠질까 봐 뛰어다니곤 했다.

1959년 사하라 태풍이 불어 우마차가 강으로 빠지고 난간이 날아가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다리가 영산교이다. 필자도 그 교를 건너 초등학교에 다녔고, 투수동 강변이산 장자나무를 지게 한 짐 가득 그다리를 건너 선창으로 팔러 다니는 혼부를 보면서 성장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주민들에게 영산교는 애환이 서린 다리이다.

그런데 그 다리는 현재 없다. 어찌 사라진 것이 그것뿐이겠는가? 호남선 서남부 7개 시군 교통 물류중심지 영산포역도 사라졌다. 영산포역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아쉬운 회한이 사무친다. 또한, 어렸을 때 역전 뒷산을 친구들은 장군봉이라고 불렀

영산강이다.

그동안 잊혀졌던 영산강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조7천억 원 사업 중에서 1조4천억 원이 우리 지역에 투입된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나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업이며, 그 중심에 바로 영산포가 핵심적 역할을 받게 된다. 영산포구 북원으로 700억 원이 투자된다. 과거 선창 모습도 복원될 것이다. 흥보관, 저류지 등 용어거리가 활성화되면 나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작용할 것이다. 시골벽적의 선상이 복원되고 배가 들어오면 영산포는 살맛나는 도시로 변화한다.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배고통 소리 울려 퍼지면, 영산포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영산강, 이 영산강이 많은 나주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경제원이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

<나주시 영산강라이온스클럽 전 회장>

장례 치르려고 보니 상호회사 부도 '황당'

어느 농가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농촌은 전부 다 노인들만 계사다 보니 나중에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농촌에는 상호회사에 많이들 가입한다. 특히 농촌에 늙은이 부도남이 있는 고시 자식들이 상호회사를 많이들 이용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웃집 어른신이 작고 하셔서 상호를 이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호를 이용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만 안 받았다. 너무나 이상했지만 담당 초상을 치러야 하니 우선 여기저기 손을 빌

려 간신히 장례는 마쳤다. 그리고 나서 알아봤더니 그 상호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다.

누군지 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 황당하고 부통이 터질 것이다. 일생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게 자식들 마음인데 상호회사가 이모양이라니 너무 기막히고 대책 없다. 상호회사들이 망해도 다른 상호가 대신 초상을 치러주는 공제 같은 걸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정점스·목포시 대양동

無等鼓

안나푸르나(Annapurna, 8,091m)는 히말라야 8,000m급 거봉 가운데 처음으로 인간에게 정상을 내준 봉우리다. 1950년 모리스 에르조그가 이끄는 프랑스대가 그 은밀한 기쁨을 맛봤다. '프리미어(Premier) 8000m'라고도 불린다.

8,000m 14화 가운데 높이로는 10번째지만 등반은 다른 거봉들에 비해 만만치 않다. 눈사태가 잦고 곳곳에 도사린 크레바스로 악명이 높다. 한국 원정대도 14명이 숨지는 혹독한 희생을 치렀다. '탱크' 엄홍길 대장도 다섯 번 만에 정상을 밟았다.

올 가을 그곳에선 내로라하는 한국의 등반가들이 자신의 한계와 갖가지 기록에 도전한다.

오은선(43)씨는 '여성 최초 8,000m 14화 완등'의 역사를 쓰기 위해 14일 안나푸르나로 향한다. 지난달 가셔브롬 I(8,068m)을 올라 13개를 마쳤으니 마지막 관문이다. 등정에 성공하면 지난 1997년 가셔브롬 II(8,035m)로부터 시

작된 '빛나는 도전'을 12년 만에 완성하게 된다.

고(故) 고미영씨의 히말라야 원정 파터너였던 김재수(48)씨도 지난날 27일 안나푸르나로 떠났다. 내년에 가셔브롬 I과 가셔브롬 II, 초오유(8,201m)까지 차례로 올라 고인이 뒀다 이런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각오다. 계획대로라면 3년여 만에 히말라야 14화를 모두 오르

게 된다. 이는 최단기간 14화 완등 기록이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진(46)씨도 '장애인 최초 14화 완등'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오는 11일 출국해 50일 일정으로 등반에 나선다. 종종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

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그는 2006년 이후 8,000m급 5개 봉을 차례로 올

랐다. 안나푸르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수확의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이다. 결실의 계절, 한국 산악인들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본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안나푸르나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자신문·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